

낱말밭의 관점에서 본 의미 변화의 유형*

박 중 감

〈目 次〉

1. 들어가기	3. 낱말밭의 관점에서 본 의미변화의 유형
2. 의미장과 연상장	3.1 (A)형
2.1 낱말밭의 개념	3.2 (B)형
2.2 낱말밭과 의미변화	3.3 (C)형
2.3 낱말밭의 성립 기반과 유형	3.4 (D)형
2.4 연상장의 도입	4. 마무리

1. 들어가기

(1.1) 구조주의 의미론의 주요 연구 방법의 하나인 意味場(semantic field) 이론은 낱말들의 구조적인 의미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라이온즈(John Lyons)는 동일한 개념적 場(conceptual field) 을 포괄하는,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낱말밭(lexical field)을 비교하여, 그 변화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²⁾

*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는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 경성대학교 독문과 손호은·박이도·곽병휴 교수들과, 초고를 읽고 세밀한 도움 말씀을 준 경남대학교 국문과 김정대 교수를 비롯한 몇 분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1) 낱말밭은 개념적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군의 낱말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場이다. 하나의 낱말밭을 형성하는 낱말들은 개념적 친족관계에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낱말밭', '의미장' 등을 동일한 의미로 쓰고, 특별히, 하나의 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들의 내적 관계를 일컬을 필요가 있을 때는 개념적 장이란 용어를 쓰겠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낱말밭 이론은 주로 트리어(J. Trier), 코세리우(E. Coseriu) 등의 이론이다.

2) Lyons(1977), pp.255-56.

(1) 낱말밭의 변화 유형

- (i) 場을 구성하는 낱말 집단(set of lexemes)³⁾이나 그것들의 의의 관계(sense-relations)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
- (ii)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⁴⁾에는 변화가 없으나, 낱말 집단 중의 한 요소가 새로운 요소로 대체된 경우.
- (iii) 場의 낱말 집단에는 변화가 없으나,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
- (iv) 場의 낱말 집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낱말이 새로운 낱말로 대체되고,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
- (v) 場의 낱말 집단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낱말이 첨가되거나 탈락됨으로써,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

(1.2) 본고는 이와 같은 의미장 이론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우리말 어휘의 구조적인 의미변화의 한 모습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국어 어휘의 의미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는 어휘 자료들은 대부분, 의미변화라는 관점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후기중세국어의 유의구조 또는 어휘 의미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유창돈(1980), 조항범(1984), 남성우(1985, 1986), 전재호(1987), 이광호(1990) 등을 비롯한 여러 앞선 연구성과들의 한 작은 부분을 종합하거나 새롭게 재해석해 본 작업에 불과하다. 특히 전재호(1987) 및 남성우(1985, 1986)에서의 치밀한 考究 내용에 의존한 바 크다.

3) 'lexeme(辭素)'은 보통 문장이나 구절의 일부로서의 구체적인 낱말이 아닌, 추상적인 하나의 어휘항목으로서의 낱말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이정민·배영남, 1987). 이는 코세리우(E. Coseriu)가 낱말밭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제시한 'lexem'과 같은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본고에서는 독일어 'lexem'을 정시호(1984)를 따라 어휘소 라고 옮긴다. 2.3 참조). 그러나,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언어 자료와 대응시킬 때에는 결국 낱말(word)과 동일시되게 마련이고, '낱말밭'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일단 '낱말'이라는 용어로 옮기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4)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는 장을 구성하는 낱말 집단들의 의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시도하는 이유는, 의미 변화에 대한 앞선 연구들이 주로 낱말 하나 하나의 의미변화에 주력한 나머지 그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 데 소홀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미장 이론과 같은 구조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면, 낱말 하나 하나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의미 변화의 구조적 일면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본고에서는 우선 의미장 이론에 대해, 여기서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의미변화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로 생각해 온 聯想(association) 및 聯想場의 원리도 부분적으로 언급한다.

다음으로는, 후기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또, 현대국어로 변화해 오는 과정에서, 앞(1.1)에서 제시한 몇 가지 유형에 상응하는 낱말발의 변화 유형을 찾아⁵⁾, 그 변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한다.

2. 意味場과 聯想場

2.1 낱말발의 개념

의미장 이론의 창시자는 트리어(J. Trier)이며, 그것을 언어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이스게르버(L. Weisgerber)라고 한다.⁶⁾

트리어는 “낱말발이란 것은 내용상으로 봐서 인접하고 있고, 상호적으로 의존해

5) 후기 중세국어에서의 해당 자료를 찾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남평우의 [古語辭典]과 유창돈의 [李朝語 辭典]에 의존했다.

6) 정시호(1984), p.47 참조. 이른바, 의미장 이론은 그것을 발전시킨 학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주로 트리어, 코세리우(E. Coseriu) 등의 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본고에서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 보는 데 그친다. 여기서의 내용은 필자가 다음의 세 가지 문헌의 관련부분을 읽고 정리한 것인데, 필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각 문헌의 著·譯者들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능한 한 상세히 주를 달아 이를 예방하고자 했다.

서 상호간에 그 기능을 규정하는 한 무리의 낱말들이다.”라고 했다.⁷⁾ 아울러, “한 낱말의 통용 가치는 그것에 인접하고 또 대립되는 낱말들의 통용 가치에 대해서 한정할 때에 비로소 잘 이해된다.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만이 그 낱말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오직 발 안에서만 의미한다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⁸⁾

일찍이, 소쉬르(Saussure)는 “언어는 하나의 체계이며, 그 체계 내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연계되어 있고, 한 요소의 가치는 다른 요소들이 동시에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고 하여, 낱말발 학설의 토대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상들을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간결히 표현한 바 있다.⁹⁾ 이런 점에서, 트리어는, 최초로, 체계로서의 언어라는 개념을 받아 들여 어휘 연구에 일관성 있게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¹⁰⁾

트리어는 훔볼트(Humboldt)의 언어관을 계승하여, 언어를 철저히 ‘분절화된 전체’로서 보았다. ‘분절구조는 모든 언어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심원한 특징이다’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낱말발의 구조도 이러한 분절화된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낱말들은 발 안에서 분절화되어서 병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낱말들은 어휘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분절되고 있지 않고, 바로 상위의 비교적 작은 부분적 전체에서 분절되고, 이 부분적 전체는 보다 더 큰 전체에서 분절되어,

허 발(1979). [낱말발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정시호(1984). “계열적 어장이론 연구: 형성배경과 전개.” 문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영천역(1988). [구조 의미론과 낱말발 이론]. 集賢社.

- 7) 트리어가 1968년에 Duden 상의 수상 기념으로 행한 [언어발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내렸다고 하므로(허 발, 1979: 36), 이는 낱말발에 대한 그의 최종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
- 8) 허 발(1979: 33)에서 재인용한 것임.
- 9) 장영천 역(1988), p.100 참조.
- 10) 허 발(1979), p.31 참조.

최종적으로는 어휘 전체를 포괄하는 계층적인 분절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¹¹⁾

트리어는 날말발 안에서의 개개의 날말은 모자이크처럼 분할·획정되어 이웃 날말들과 개념적 친족관계를 구성하고, 그것들과 더불어, 빈틈 없는 구성과 뚜렷한 윤곽으로써 분절된 전체, 즉, 개념 연합체 또는 개념 영역을 구성한다고 보고, 성적 평가어를 그 예로 제시했다.¹²⁾ 우리나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성적평가어의 날말발

수	우	미	양	가
평가되는 성적의 분절(1)				
← 평가되는 성적의 분절(2) →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	노력 요함	

예를 들어, 위의 두 가지 날말발의 날말들은 모두 성적 평가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각각 내용상으로 인접하고 있고, 그것들이 모여 평가되는 성적의 전체 영역(개념 연합체)을 표시하며, 각각의 하위 영역으로 명확히 분절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간의 대립에 의하지 않고 하나 하나를 고립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트리어가 가정한 날말발의 한 전형이라고 하겠다.

11) 허 발(1979), p.30, p.36 참조.

12) 정시호(1984 : 47) 참조. 정시호(1984)는 wortfeld를 語場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날말발'으로 바꾸어 인용했다.

2.2 낱말발과 의미변화

낱말발 이론의 첫번째 응용은, 발의 구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발의 내부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즉, 발의 분절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트리어는 이와 같은 발의 분절 구조의 변화에 연구적 비중을 크게 두었다고 한다.¹³⁾

이는 트리어가, 소쉬르가 추구한 역사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를 엄격히 구분하여 각각을 별개의 과학으로 간주하고, 역사적 연구를 개개의 언어 사실의 변천을 추구하는 부문이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이원론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가 체계·구조를 이루는 전체적인 것이라면, 기술적인 연구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연구도 전체로서의 언어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방법론적 요청에 따라, 낱말발에 대한 기술적 연구의 성과를 역사적 연구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¹⁴⁾

트리어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중세 高地 독일어에서의 [知性(Verstand)]의 의미장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다. 1200년대의 궁정문학 시대 및 1300년대의 마이스트 에카르트(Meister Eckehart)¹⁵⁾ 시대의 [지성]의 발의 구조를 조사해서(기술적 연구), 양자를 비교하고 100년 동안에 일어난 발의 내부적인 변화를 밝혀려 한 것(역사적 연구)이다.¹⁶⁾ 두 발을 그림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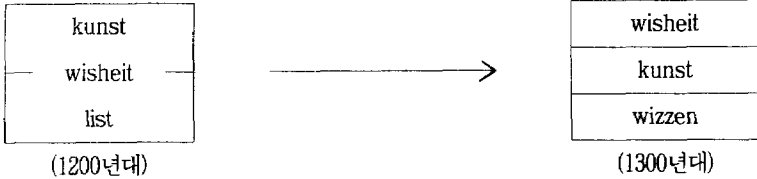
(3) 독일어 '지성'의 낱말발

13) 허 발(1979), p.37 참조.

14) 허 발(1979), p.38 참조.

15) 중세 독일의 유명한 신학 및 철학자.

16) 허 발(1979), pp.38-39 참조.



1200년 경에는 [지성]의 개념적 영역이 kunst, list, wisheit 의 세 낱말에 의해 분절되어 이뤄져 있었다. kunst는 상류의 또는 宮廷的 범위의 지식으로 사회적 행위를 포함한다.¹⁸⁾ list는 상대적으로 하층의, 더 기술적인 범위의 지식과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긍정적 고귀성은 없다.¹⁹⁾ 그것은 미술적이고 사기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wisheit는 대부분의 쓰임에서 앞의 두 낱말의 대응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知的·윤리적·궁정적·미학적·종교적 요소를 不可解의 전체로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낱말이다. 여기서는 kunst와 list로 나타나고 있는 '귀족성 對 평민성'의 대립과 wisheit가 드러내는 보편성 등의 특색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뒤 1300년 경에는, list가 그것이 가진 미술적이고 사기적인 면에 기인된 불유쾌한 연상의 결과로 의미가 축소되어 [지성]의 의미장에서 탈락되었다. 그리고 wizzen이 새롭게 발로 편입되면서 발의 내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봉건주의적 구분인 '귀족성 對 평민성'의 대립도 없어지고, wisheit가 지혜 또는 지식의

- 17) 근대 독일어에서의 이들 세 단어의 의미는 각각 '지혜', '기능 또는 책략', 그리고, '예술'이다.
- 18) kunst의 중심 영역은 기사도적인 명예와 도덕을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 교화나 육체적 단련과 같은 사고와 행동,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조화·통일의 경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너자 앞에서 말을 타는 자세, 마상 시합에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 몸짓과 걸음걸이, 침묵을 지킨다든가 물어보는 방법 등 모두가 kunst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허 발, 1979 : 40).
- 19) list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문학, 식물학, 광물학, 의학, 금은 세공술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격투 과정에서의 인내나 수련도 기사도적인 것이 아니면, list에 속한다(허 발, 1979 : 40).

전 영역을 나타내던 보편성도 사라졌다. 이 때는 wisheit는 더 이상 지식 및 기술의 의미를 갖지 않으며, 지식 및 기술의 의미는 wizzen이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wisheit는 '종교적 신비주의적 체험'을, wizzen은 '일상적 지식과 기술'을, 그리고, kunst는 '예술적인 지식'을 뜻하게 되었다.²⁰⁾

이와 같은 발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심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낱말들이 서로를 제한하고 어떤 간극이나 중복도 없이,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분절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성이 충분하지 않다. 군대 계급 용어와 같은 특수화되고 엄격히 정의된 체계들을 제외하고는, 언어가 가진 애매성, 同義, 모호성 및 그와 유사한 요인들 때문에 틈과 중복도 없이 분절된 전체로서의 낱말발의 실제적 예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발 이론이 의미 연구의 발달에 기여한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첫째,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을 언어학의 한 분야에 도입한 공로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발 이론이 아니었으면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큰 문제들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낱말발 이론이 없었더라도 개개의 낱말의 의미 변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가능했겠지만, 독일어 [지성]의 의미장에 대한 연구와 같이 그러한 변화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원리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언어가 인간의 思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방법론을 제공했다. 모어 화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데 모어가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그 언어 안에 존재하는 낱말발들의 구조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²²⁾

20) 이상의 설명은 S.Ullmann (1957)의 것인데, 본고에서는 남성우 역(1979: 178-79)를 이용했다.

21) 트리어도 1938년의 논문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1960년대에 와서는 새롭게 수정했다고 한다 (정시호, 1984: 48).

22) 발 이론의 한계와 언어학적 의의에 대한 이상과 같은 언급은 주로 Ullmann (1962)의 견해다. 본고에서는 남성우 역(1987: 342-43)을 이용했다

2.3 낱말밭의 성립 기반과 유형

지금까지, '개념적 공통성을 가진', 또는 '의미적으로 인접한' 낱말들이 하나의 낱말밭을 형성하게 된다는 언급을 해 왔다. 그러므로, 둘 이상의 낱말이 하나의 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데에는 문제의 낱말들이 개념적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셈이다. 그것은 곧 낱말밭의 성립 기반이 개념적 공통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념적 공통성 또는 의미적 인접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본다.

트리어에 이어 낱말밭의 체계적 분석방법을 수립한 코세리우(E. Coseriu)는 낱말밭의 분석에 '어휘소(Lexem)', '원어휘소(Archilexem)' 및 '의의소성(Sem)'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을 이용하였는데, 이 세가지를 낱말밭의 구성요소라고 했다. 어휘소는 낱말밭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원어휘소는 하나의 낱말밭의 내용 전체에 대응되는 단위인데, 구체적인 낱말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의소성은 어휘소들의 대립관계를 분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최소의 변별적 특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父母]라는 개념적 장의 구성요소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든다면, [父母]라는 개념적 장은 <아버이>라는 구체적인 낱말로 실현되어 있는데, [父母]는 원어휘소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휘소에 해당되고, 두 어휘소를 구분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의미자질은 의의소성이 된다고 보겠다.

일련의 낱말들이 개념적 공통성 또는 인접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동일한 하나의 원어휘소에 해당하는 개념적 장 안에서 의의소성에 의해 서로 구분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코세리우는 개념적 공통성이나 인접성, 의의소성에 의한 구분 등의 특징을 음운론적 방법론에서 차용한 '대립(opposition)'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했다. 그것은 곧 낱말밭의 성립 기반이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의미적인 대립'에 있다는 것이다.

23) 허 밭(1979), p. 188 참조. 여기서의 번역 용어는 정시호(1984)의 것이다.

트리어 이후, 포르찌히(W.Porzig), 입센(G.Ipsen), 바이스게르버, 올레스(A. Jolles)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의 낱말밭이 제시되어 왔다. 포르찌히는 의미장(Bedeutungs feld)을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²⁴⁾

- (i) ‘금발와머리털’, ‘나무벌채하다’, ‘눈·보다’, ‘짓다·개’ 등과 같은 포괄적인 유형의 의미장.
- (ii) 색채어 또는 도덕적 평가의 유형에 쓰이는 분할적 의미장.

(i)은 그 밭의 구성 요소들이 통합적 관계에 있으므로 ‘통합적 낱말밭’으로, (ii)는 구성 요소들이 계열적 관계에 있으므로 ‘계열적 낱말밭’으로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계열적 낱말밭이다.

낱말밭의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확립하고, 밭의 유형을 보다 상세하고 치밀하게 분류한 사람은 코세리우이다.²⁵⁾ 그는 낱말밭을 우선 單次元의 것과 複次元의 것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라틴어의 색채어에는, [黑] 또는 [白]의 뜻에 해당하는 낱말이 ‘광택이 있느냐/없느냐’에 따라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 ‘흑/백’의 차원이나 ‘광택유/무’의 차원 중 한 가지 차원에서의 대립에 바탕을 둔, 아래의 (4)는 단차원의 밭이고, 두 가지 차원에서의 대립에 바탕을 둔, 아래의 (5)는 복차원의 밭이다.

(4-)		(4-)
[黑]	[白]	[黑]
ater	albus	riger
[黑]	[白]	[白]
ater	albus	[광택없음]
riger	candidus	[광택있음]

24) 임환재역(1984), p. 198 참조.

25) 코세리우의 낱말밭 이론에 대한 소개는 주로 정서호(1984 : 147-56)의 것을 정리한 것이다.

단차원의 날말발은 ‘對義的 날말발(antonymisch)’, ‘段階的 날말발(graduell)’ 및 ‘系列的 날말발(seriell)’²⁶⁾ 등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는데, 각 유형은 발을 구성하는 날말들, 즉, 어휘소(Lexem)들의 대립관계적 특성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다.

대립(opposition)이라는 개념이 언어학에서 체계적으로 이용된 것은 트루베츠크이(Trubetzkoy)를 중심으로 한 프라그학파의 음운론이라고 생각된다. 트루베츠크이는 [음운론의 원리]에서 음운적 대립을 대립항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어, ㉠유무대립(privative opposition), ㉡계단대립(graduelle opposition), 및 등치대립(äquipollent opposition)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²⁷⁾ 코세리우는 이들 세 개의 음운적 대립에 유사한 구조를 어휘체계 안에서도 인정하고 있다.²⁸⁾ 각 대립유형을 간략히 소개한다.²⁹⁾

㉠유무적 대립은 ‘결여적 대립’이라고도 하는데, 한 대립항이 특정한 자질의 존재를 통해서, 다른 대립항은 자질의 부재를 통해서 특징지어져 있는 대립이다. 음운론에서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그 예다. 어휘론에서의 예는 ater와 riger 처럼 동일하게 [黑]이란 개념을 공통적으로 가지면서 [광택있음]이란 의의소성이 전자에는 없고 후자에는 있어서 구분되는 것과 같은 대립관계를 들 수 있다. albus와 candidu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단적 대립은 ‘차등적 대립’이라고도 하는데, 각 대립항이 동일한 특성의 상이한 단계 혹은 등급을 통해서 특징지어져 있는 대립이다. /a/-/o/-/o/-/u/와 같은 음운적 대립은 혀의 최고점이 동일하게 혀의 뒷부분인 후설모음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최고점의 상대적인 높이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되

26) 여기서의 계열적 날말발은 포르쨌히의 포괄적인 유형의 의미장과 분할적 의미장의 구분에서 분할적 의미장의 다른 이름인 계열적 의미장과는 다르다.

27) 본고에서는 2.4절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대립 유형 외에 ‘연상적 대립’이라는 순수히 어휘론적인 대립 유형을 설정하여 국어 어휘 의미변화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

28) 허 발(1979). p. 179 참조.

29) 장영천 역(1988), p. 249 및 허 발(1979), pp. 197-99 참조.

는 것이므로 계단적 대립의 예이다.³⁰⁾ 어휘론에서는 boiling-hot-warm-cool-cold-freezing 등과 같은 낱말밭을 들 수 있다.

◎등치대립은 각 대립항이 논리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가져 그들 사이에 어떠한 서열도 존재하지 않는 관계이다. 무성 파열음이라고 불리는 /p/-/t/-/k/에서의 대립은 각 항 사이에 서열이 없고 상호간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므로 등치대립의 예이다. 기본적인 색채어의 낱말밭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코세리우는 (5)에서 제시한 ater와 albus의 관계, riger와 candidus의 관계도 여기에 넣고 있다.

코세리우는 단차원의 낱말밭을 對義的 낱말밭, 段階的 낱말밭 및 系列的 낱말밭 등의 세 가지로 나누었음을 소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대의적 낱말밭을 ①반의적 낱말밭과 ②유의적 낱말밭으로 이분하여 구분하고, ③단계적 낱말밭 ④계열적 낱말밭 등과 함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다.³¹⁾

코세리우의 대의적 낱말밭은 대개 대립항이 두 개인 二極的 대립의 낱말밭이다. 反義語 ‘kurz(short)-lang(long)’이 형성하는 X 對 非X의 대립을 결여적 대립이라고 하고, 類義語 ‘maitriser(의도적으로 지배하다)’와 ‘dominer(지배하다)’가 형성하는 관계를 ‘類義的 대립’이라 하여 그 예로 들고 있다. 코세리우는 대의적 낱말밭에서의 대립은 ‘극적(polaire) 대립’으로 총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對義的 낱말밭(antonymisch)’이라는 용어가 가진 문자적 의미로 보아, 類義語 ‘maitriser’와 ‘dominer’ 등과 같이 유무대립에 비탈을 둔 경우는 여기서 분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kurz-lang’를 단 두 개의 대립항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앞의 세 가지 대립의 하나로 소속시킨다면 등치대립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서열적이지

30) 입술모양은 /a/는 평순이고, /c/,/o/,/u/는 원순이므로 다르다. 허발(1979: 198)에서는 /a/ 대신 /a/를 들고, ‘동일한 성질의 입술모양에 있어서 혀의 위치에 의한 정도의 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착오인 것 같다.

31) 다음(2.4)에서 ‘연상적 낱말밭’을 추가할 것이다.

32) 정시호(1984), p.150 참조.

않고 또 특정한 변별적 자질의 유무에 의한 대립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설정하는 ①반의적 날말밭은 단 두 개의 대립항이 등치대립의 관계로 존재하는 경우, 즉, 단순이원대립 관계의 날말들이 형성하는 밭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maitriser'와 'dominer'은 유무적 대립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앞에서 예시한 ater와 riger, albus와 candidus가 형성하는 각각의 날말밭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유무적 대립에 바탕을 둔 날말밭을 유의적 날말밭이라고 하겠다. 이는 곧, 동의관계(synonymy)의 날말들이 형성하는 밭이다.

③단계적 날말밭은 밭의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계단적 구획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수·우·양'과 같은 인공적 성격의 성적평가어, inch-feet-yard와 같은 계층적인 관계,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boiling-hot-warm-cool-cold-freezing 등이 형성하는 밭이 이에 해당된다³³⁾. 단계적 날말밭은 모두 계단대립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관계는 등급적 반의어(gradable antonyms)를 형성한다. 정리하면, 본고에서 제시하는 단계적 날말밭은 이른바 등급적 반의 관계의 날말들이 형성하는 밭이 된다.

④계열적 날말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多項의 同價的 대립이다. 계열적 날말밭에는 의미적 실질이 二極에 집약되는 極性이라든가 계단적 날말밭에서 보이는 계단적 상승 또는 하강도 보이지 않는다. 가령, 요일명, 새이름, 고기이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이 같은 수준에서 동일한 논리적·의미적 상태를 가진다.³⁴⁾ '일·월·화...' 등과 같은 요일명들이 구성하는 밭을 보면, 이는 順列的인 성질의 대립일 뿐, 성적평가어처럼 位階的인 성질은 아니므로, 앞의 단계적 날말밭과는 구분된다. 코세리우의 계열적 날말밭은 모두 등치대립에 해당되는데, 대립항들이 단 두 개가 아니고 다원적이다. 이와 같은 대립관계는 다원적 반의어(multiple antonyms)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원적 반의어들이 형성하는 밭이

33) 정시호(1984), p. 151 참조.

34) 정시호(1984), p. 151 참조.

계열적 낱말발이 되는 것으로 정리한다.

복차원의 낱말발의 성립 기반도 이상의 몇 가지 대립 유형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단지 그 차이는 ‘차원(dimension)’ 둘 이상 겹쳐 있다는 점이다.³⁵⁾ 쉽게 말해서, 둘 이상의 대립적 기준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 있는 발이다. 앞의 (5)가 그 예인데, (5)로 다시 인용한다. <5>의 가로 관계는 등치대립으로, 세로 관계는 유무대립으로 관계지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차원의 낱말발도, 단지 둘 이상의 차원이란 관점에서 분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각각의 분절에 이용되는 대립 기준은 단차원의 것과 동일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 등 치 대 립 →			
[黑]	[白]		↑
ater	albus	[광택없음]	유
riger	candidus	[광택있음]	무
			↓
			대
			립

2.4 연상장의 도입

본고에서 낱말발의 성립 기반에 대해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대립관계 중의 하나로 보기는 힘들지만, 좀 다른 성질의 개념적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낱말들이 어떤 관계網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하나의 발으로 볼 수는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다.

후기 중세 국어에서 [愛]의 뜻을 가진 낱말은 ‘피다’, ‘뚫다’, ‘스랑ᄃᆞ다’ 등인데, 이들 동사들의 선택제약을 보면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³⁶⁾

35) ‘dimension(차원)’이란 어떤 낱말발 안에서 기능을 가지면서 그 낱말발의 어휘소 사이의 대립에 대한 척도를 제공해 주는 분절의 관점이다. ‘dimension’은 코세리우가 Floyd G. Lounsbury(1964)로부터 원용한 것이라고 한다(정시호, 1984 : 150).

36) 세 동사의 의미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남성우(1986), pp. 56-5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6) (가) 괴여 : 爲我愛人(훈민정음 해례 합자해)
- (나) 아소 님하 도람 드러샤 괴오쇼셔(악학계법, 정교정곡)
- (다) 괴시란티우러곰 좃니노이다(악장가사, 서경별곡)

(6)에서 보듯이, (가)에서는 동사 '괴다'의 목적어가 '일반적인 他人'이고, (나)과 (다)에서는 작자 자신이다.

- (7) (가) 선빅톨 득수실씨(용가 80)
- (나) 子息을 득수샤 正法 모리실씨(월곡 125)
- (다) 어마님 山陵을 득수샤 : 戀妣山陵(용가 93)
- (리) 네 내 막수물 득수며 : 汝愛我心(능해 4 : 31)

(7)의 '닷다'의 목적어는 (가)에서는 '선빅'이고 (나)에서는 '자신의 자식'이다. 그런데 (다)에서는 사람이 아닌 구체적인 대상인 '山陵'이고, (리)에서는 추상적인 대상인 '막수'이다.

- (8) (가) 어버이 子息 사랑흐문 아니 한 스시어니와(석보 6 : 3)
- (나) 獼猴王이 닐오디—八萬四千夫人이 이쇼디 글란 사랑티 아니코(월석 7 : 17)
- (다) 사랑흐운 히이 恩惠르윈 비출 필요를 너부니 : 愛日恩光蒙借貸
(두해 15 : 15)
- (리) 오직 내 지조를 사랑흐넛다 : 只愛才(두해 7 : 34)

(8)의 '사랑흐다'의 목적어는 (가)에서는 '자식'이고, (나)에서는 '八萬四千夫人'이다. 그런데, (다)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인 '히'가, (리)에서는 추상적인 대상인 '지조'가 목적어임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 동사의 선택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⁷⁾ 따라서, 이 발은 유무대립에 성립 기반을 둔, 유의적 낱말발이 된다.

목적어 \ 동사	괴다	뜻다	스랑ㅎ다
[인 간]	+	+	+
[구체물]	-	+	+
[추상물]	-	+	+

그런데, '괴다', '뜻다', '스랑ㅎ다'의 세 낱말 중, '괴다', '뜻다'는 탈락하여 死語化되고, '스랑ㅎ다'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의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스랑ㅎ다'는 [愛]의 의미 뿐만 아니라 [思]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思]가 중심적 의미이고 [愛]는 주변적 의미였다. 그리하여, '스랑ㅎ다'는 [思]의 '싱각ㅎ다'와도 동의 경쟁의 관계에 있는 셈이다. 아래 예의 '스랑ㅎ다'와 '싱각ㅎ다'는 모두 [思]의 의미이다.

- (9) (가) 세 가짓 供養이 그르시 업슬씩 前世佛을 스랑터시니(월곡 87)
 (나) 每常 아드를 싱각ㅎ야(월석 13:10)
 (다) 몸 밧괴 다을 업슨 일란 스랑티 말고: 莫思身外無窮事(두해 10:8)
 (리) 毗耶스 그날 이룰 싱각ㅎ건댄: 憶毗耶當日事건댄(금삼 2:2)

그러므로, '스랑ㅎ다'는 다의어로서 다음과 같은, 유무대립에 바탕을 둔 두 개의 유의적 낱말발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스랑ㅎ다'가 [思]의 발에서는 탈락되고, [愛]의 발에서는 나머지 요소들을 몰아내고 발을 독차지한 양상이다.

37) 남성우(1986), p. 58 참조.



<그림 II>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두 개의 날말발 [f]a에서의 변화 내용과 [f]b에서의 변화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랑ㅎ다'는 [思]가 중심적 의미이고 [愛]가 주변적 의미라면, '스랑ㅎ다'는 원래 [f]a에만 소속되어 있었는데 적용상의 전이의 결과 [f]b로 침투해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의 <그림 II>가 나타내는 것보다 앞 단계에서는 발의 구조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그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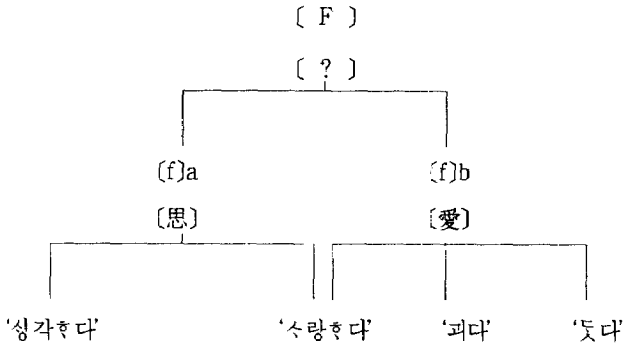
<그림 I>의 단계에서 <그림 II>의 단계로 바뀐 뒤에, 다시 다음 <그림 III>과 같은 단계로 변화하게 된다.



<그림 III>

이상과 같은 언급은 (f)a에서 밀리기 시작한 ‘스랑ㅎ다’가 (f)b로 들어가 기존의 낱말들을 몰아내었다는 것이다.³⁸⁾ 이는 하나의 발에서 새로 들어 온 요소와 기존의 요소가 경쟁하게 되면, 새 요소가 이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일반성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위의 두 낱말밭을 보다 상위의 어떤 발의 부분밭(sub-field)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앞의 <그림 Ⅱ>를 바탕으로 하여 그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두 밭을 하나의 밭으로 묶을 수 있는 밭의 성립 기반은 무엇이겠는가? 앞(2.3)에서 계열적 낱말밭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밭의 성립 기반을 세 가지 유형의 대립 관계로 정리한 적이 있다. 그러나, [思]와 [愛]는 이 중 어느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장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즉 원어휘소에 해당하는 개념적 단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밭의 성립 기반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대립만을 고집한다면, [思]와 [愛]를 어떤 상위 의미장의 '직접적 하의관계(immediate hyponymy)'와 유사한 관계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38) 조항범(1984 : 145)에 의하면, '돏다'는 근대국어 이전에, '피다'는 근대국어 이후에 사어화되었다.

코세리우는 날말발을 공통의 의미 영역을 확정하면서 상호 직접 대립하는 복수의 어휘 단위(날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싱각ㅎ다'와 '스랑ㅎ다'는 [思]라는 공통의 의미 영역을, '스랑ㅎ다', '괴다', '똥다'는 [愛]라는 공통의 의미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각각, 날말발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싱각ㅎ다', '스랑ㅎ다', '괴다', '똥다' 모두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 영역은 설정하기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위의 두 날말발을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로 묶지 말고, 따로 따로 독립시켜 고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날말발의 개념을 조금 확대하여, 두 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립 기반을 강구해 내는 방안이다.

앞의 방안은 몇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두번째 방안을 택한다. 첫째, 두 발 사이의 영향 관계가 뚜렷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관계를 포착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싱각ㅎ다'와 '스랑ㅎ다'를 하나의 발으로, 또, '스랑ㅎ다', '괴다', '똥다'를 하나의 발으로 본다면, 상호 영향 관계에 있는 그 전체도 하나의 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의미장 이론 자체가 언어를 체계·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전체라고 보는 소쉬르의 구조주의를 계승한 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개개의 날말들의 의미 변화가 아니고 의미 변화의 구조적 특징인 이상 두 발을 분리시켜 고찰하는 것은 타당할 수 없다. 넷째, 문제되는 두 의미 영역이 개념적으로 보아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본고에서 생각하는 두번째 방안은 전통적인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의미 변화의 원인으로 다뤄져 온 '聯想' 및 '聯想場(associative fields)'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단, 앞의 두 발이 하나의 연상장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구조주의 의미론에서는 연상이 날말들의 의미 변화나 어휘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날말들은 음성 및 의미적인 면에서 다른 날말들과

어떤 것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공유에 의해 연상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명사 light(빛)는 의미 사이의 연상에 의해 darkness(어둠), day(낮), sun(해) 등과 관련되고, 형용사 light(무겁지 않은)와는 소리 사이의 연상(同音異義)에 의해 관련된다. 그리고, 음성 및 의미적 근거에서 형용사 light(어둡지 않은), 동사 to light(빛나다, 빛나게 하다), 명사 lightning(번개불) 등과 관련될 수도 있다.³⁹⁾

연상은 의미 변화의 필요 요건이라고 생각되었고, 의미 변화의 유형을 그것의 기초가 되는 연상에 의해 분류해 왔다. '의미 사이의 연상에 의한 변화'와 '이름(name) 사이의 연상에 의한 변화'로 나누고, 그것들을 각각 類似(similarity)와 隣接(contiguity)의 기준에 의해, (a)의미 사이의 유사에 의한 변화, (b)의미 사이의 인접에 의한 변화 (c)이름 사이의 유사에 의한 변화 (d)이름 사이의 인접에 의한 변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 울만(S. Ullmann)의 방법론은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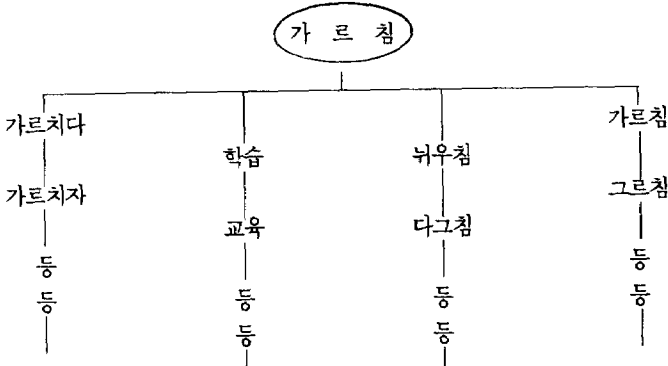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소박한 연상주의는 고립된 낱말들 사이의 연상에 의해 낱말들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좀 더 구조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연상적 의미 변화의 설명 방법이 소쉬르의 제자 바이어(Bally)에 의해 도입된 聯想場이란 개념이다.⁴⁰⁾

모든 낱말은 그것을 다른 어사와 관련시키는 聯想網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쉬르는 "하나의 주어진 辭項은 말하자면 星座의 중심이며, 그 수에 한정 이 없는 同位 辭項들이 모여드는 點이다" 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낸 바 있다.⁴¹⁾

39) 남성우역(1987), p.86 참조.

40) 남성우역(1987), p.329 참조.

41) 오원교역(1975), p.162 참조. 편의상, 그림의 모양을 약간 변형시켰다.



'가르침', '가르치다', '가르치자' 등은 공통된 어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르침', '누우침', '다그침' 등은 공통된 접미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所記(signifié: 개념)의 유추에 의해, '가르침', '학습', '교육' 등이 관계된다. '가르침'과 '그르침'은 단지 청각영상만의 공통성에 의하여 이뤄지는 관계의 예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발전시켜 발리는 연상장이란 유용한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는 예를 들어, 낱말 boeuf(소)는 (a) '암소, 황소, 송아지, 뿔, 빈추하다, 울다' 등을, (b) '노동, 쟁기, 멩에' 등을 연상시키고, (c) '힘, 인내력, 끈뭇 등이나 느낌, 무거움, 수동성의 관념' 등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연상장을 순수히 의미 사이의 연상에 의한 관계망으로 국한시켜 분석하였다.⁴²⁾

연상장은 그 구성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과, 연상의 범위나 연상되는 辭項 등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고 무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울만(S. Ullmann)은 연상장의 개념에 의해 열린 더 넓은 전망은 (i)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었던 과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게 하고, (ii) 언어학자를 그의 자료에 본유된 함정으로부터 막아 주고, (iii) 다르게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해결책을 시사하는

42) 남성우역(1987), p. 329 참조.

등의 세 가지 주요한 면에서 의미 변화의 연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⁴³⁾

첫번째 경우의 예만 간략히 소개한다. 불어 낱말 viande는 15c 경부터 [음식물]이란 뜻에서 [고기]란 뜻으로의 전이가 시작되어, 17c 이후에는 완전히 [고기]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현상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 등에서 일어나지 않고 유독 불어에서만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에 연상장 이론은 보다 완전한 답을 제공한다: viande와 의미적인 연상 관계에 있던 chair(살고기)가 [음식, 생활]을 뜻하는 chere와 동음충동을 일으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특히, 四旬節 기간에 faire bonne chere라는 말이 ‘맛 좋은 음식을 먹다/사치스런 생활을 하다’는 뜻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chere와 혼동될 소지가 없는 viande가 chair를 대신해 쓰이게 되는 과정에서 의미 축소가 일어나게 되었다.⁴⁴⁾

앞에서 제시한 [思]와 [愛]의 두 의미장이, 의미상의 유사에 의한 연상으로, 하나의 연상장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행위와 사랑하는 행위의 관련성을 짐작하는 것도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다’가 [思]에서 [愛]로 적용상의 전이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연상의 개연성을 높여 준다고 보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상장의 개념을 원용하여 ㉠ ‘연상적 대립(associative opposition)’이라는 대립 유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두 발을 포괄하는 상위의 발을 ㉡ ‘연상적 낱말밭(associative field)’이라 하여 낱말밭의 한 유형으로 세우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고에서 설정한 낱말밭의 유형은 ㉠반의적 낱말밭 ㉡유의적 낱말밭 ㉢단계적 낱말밭 ㉣계열적 낱말밭 ㉤연상적 낱말밭 등의 다섯 가지이고, 또, 낱말밭의 성립 기반이 되는 의미적 대립 유형은 ㉠유무대립 ㉡계단대립 ㉢등치대립 ㉣연상적 대립 등의 네 가지이다.

43) 남성우역(1987), p. 3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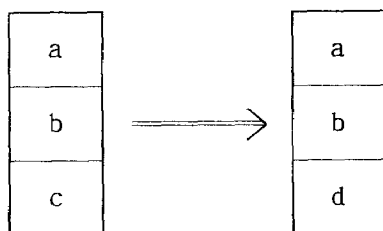
44) 남성우역(1987), p. 290-91 참조.

3. 날말발의 관점에서 본 의미 변화의 유형

앞(1.1)에서 든 다섯 가지 유형 중, 첫번째 것은 문제의 날말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제외하고, 두 번째 유형부터 각각 (A)형, (B)형, (C)형, (D)형이라 하여 차례대로, 우리말 예를 들어 가면서, 고찰한다.

3.1 (A)형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날말 집단 중의 한 날말이 새로운 날말로 대체된 경우다. 라이온즈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⁴⁵⁾



‘강’과 ‘호수’의 차이를, 전자는 [흐름]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후자는 [고임]이라는 자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한다면, 현대 국어에서 [고임]의 변별적 자질을 가진 날말 집단은 ‘웅덩이, 못, 호수’가 될 것이다. 적절한 이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원어휘소를 [고여있는 물]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들은 각 지시 대상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차례대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계단대립에 비탈을 둔, 일종의 단계적 날말발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발의 원어휘소는 구체적인 날말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후기 중세국어에서 이들 날말에 대응되는 것은 ‘웅덩이, 못, ㅁ름’이다. ‘웅덩이’와 ‘못’은 현대 국어에까지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형태 및 의미에서 별다른 변화를

45) Lyons(1977), P.256 참조. 나머지 유형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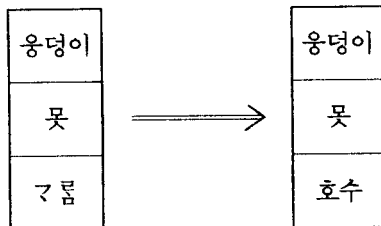
입지 않았다.

- (11) 웅덩이 오: 滄, 웅덩이 황: 潢, 웅덩이 더: 澹, 웅덩이 피: 陂(훈몽 上 25)
- (12) (ㄱ) 못 디: 池(훈몽 中 8)
- (ㄴ) 呪^하야 혼 모슬 지스니(석보 6: 31)
- (ㄷ) 楊枝^사 물 호려 ^하시니 네 업던 모슬 帝釋天이 일워내니(월곡 105)

그런데, ‘ㅁ름’은 [江]의 의미 외에 [湖]의 의미도 가진 다의어였다. 다음은 [湖]의 의미로 쓰인 예다.

- (13) (ㄱ) 미햇 亭 | ㅁ름 프레 갓가오니: 野亭遍湖水(두해 21: 4)
- (ㄴ) 새려 ㅁ름 ㅁ쉬 지블 지스니: 新作湖邊宅(두해 15: 24)
- (ㄷ) ㅁ름우회 수프렛 브르미: 湖上林風(두해 15: 49)

‘ㅁ름의 중심적 의미는 [江]이고 [湖]는 주변적 의미인데, [江]으로서의 ‘ㅁ름’이 漢字語 ‘강’으로 대체되면서, [湖]의 ‘ㅁ름’은 漢字語 ‘호수’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후기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고여있는 물]의 의미장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의 낱말만 새로운 낱말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흐르는 물]이란 의미장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 場의 날말 집단인 후기 중세 국어에서의 '기천(渠)', '내(川)', 'ㄱ롬(江)' 등도 계단대립을 이루는, 일종의 '단계적 날말발'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14) 기천 거: 渠(石千 32)⁴⁶⁾

(15) (ㄱ)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流斯爲川于海必達(용歌 2장)

(ㄴ) 흰하야 물근 내홀 뿡하엿도다: 敵豁當淸川(두해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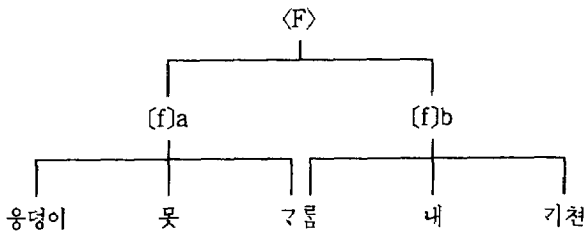
(ㄷ) 내과 뿡고리 퍼 빗기 흐르고: 川谷血橫流(두해 22:32)

(16) (ㄱ) ㄱ롬매 비 업거늘: 河無舟矣(용가 20장)

(ㄴ) 두리 즘은 ㄱ롬매 비취요미 곧하나라(월석 1:1)

(ㄷ) ㄱ롬과 우몫 브리 다 님디고(월석 2:48)

두 개의 날말발을 차례대로 [f]a, [f]b라 칭하면, [f]a, [f]b는 연상적 대립에 기인되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연상적 날말발을 형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두 발의 개념적 유사성이 확연하고, [江]의 'ㄱ롬'이 [湖]의 의미로 전이 된다는 사실에서 그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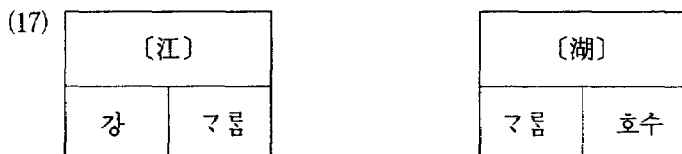


46) 후기중세 국어 이후의 자료에서의 용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ㄱ) 기천에 셔러더 죽은 거슨: 落渠死(無冤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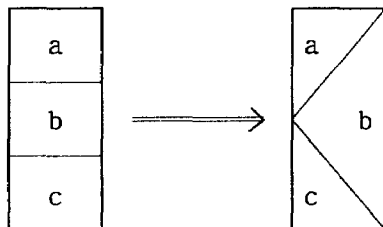
(ㄴ) 기천ㄱ치 내내 사랑(靑丘(吳), p.96)

따라서, ‘ㄱ롭’은 두 개의 의미장에 걸쳐있는 다의어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음(17)의 그림과 같은, 유무적 대립에 바탕을 둔 두 개의 유의적 낱말밭에서 동시에 동의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결국 漢字語 ‘강’과 ‘호수’가 활발히 쓰이게 됨으로써 동의경쟁에서 탈락하여 死語가 된다.



3.2 (B)형

場의 낱말 집단에는 변화가 없으나,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는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의미의 특수화 등이 주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후기 중세 국어에서 ‘늣다’는〔老〕와〔暮〕의 의미를 가진 다의어였다. 다음 (18)은 ‘늣다〔老〕’의 용례이고, (19)는 ‘늣다〔暮〕’의 용례이다.

(18) (ㄱ) 나는 늣거 호마 無想天으로 가리니 法化를 묻미쳐 보승봉릴씨 우노히
다(석보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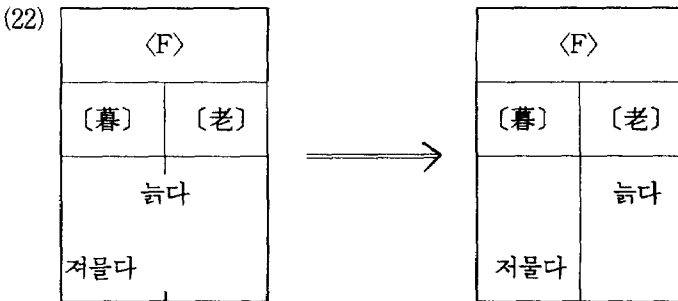
(ㄴ) 늣근 선비를 보시고: 接見老儒(용가 82장)

(19) 江湖엔 보미 늣거 가느니: 江湖春慾暮(두해 15:49)

따라서, '늡다(暮)'는 '저물다(暮)'와 동의 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늡다'는 인간과 자연 현상 모두에 쓰이고, '저물다'는 자연 현상의 경우에만 쓰이므로, '저물다'에는 [+자연현상]과 같은 자질이 존재하고 '늡다'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무적 대립에 바탕을 둔, 유의적 낱말밭이다. 다음은 '저물다(暮)'의 용례다.

- (21) (ㄱ) 하늘히 침고 프른 소매 열우니 허 저물어늘 긴 대를 지어 셋도다: 天
寒翠袖薄日暮倚脩竹 (두해 8:66)
(ㄴ) 저물 모: 暮(훈몽 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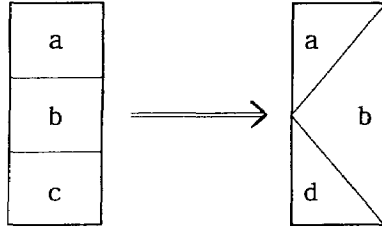
'저물다'와의 동의 경쟁 결과, '늡다'는 [暮]의 의미는 뺏기고 [老]의 의미만 가지게 되었다(의미의 특수화). [暮]의 의미장을 (f)a, [老]의 의미장을 (f)b라고 하고, 두 개의 밭이 연상적 대립에 바탕을 둔, 하나의 연상적 낱말밭 (F)를 구성한다고 하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낱말 집단에는 변화가 없으나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3 (C)형

場을 구성하는 낱말 집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낱말이 새로운 낱말로 대체되

고,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후기 중세 국어에서 [形狀]의 의미장을 채우는 낱말들로 우선 ‘양주, 좃, 얼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양주, 좃’은 주로 [流動的인 모습]을, ‘얼굴’은 [固定的인 모습]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⁴⁷⁾

‘양주’의 경우, [流動的인 모습] 또는 [固定的인 모습]에 두루 쓰인 것 같다. 현대어로 옮긴다면, (23)의 (ㄴ)에서는 ‘표정’ 또는 ‘모습’이, (ㄷ)에서는 ‘형상’ 또는 ‘생김새’가, 그리고, (ㄹ)에서는 ‘모습’이 적절할 것이다.

(23) (ㄱ) 양주 좃 : 姿, 양주 태 : 態(훈몽 下 26)

(ㄴ) 懷愴은 슬허흔는 양지라(월석 序 16)

(ㄷ) 山인 양지 티와듯 ㅎ고 : 山勢聳(범음집 9)

(ㄹ) 주리며 치우문 奴僕이 賤흔듯고 ㄴ양주는 늘 근 한아비 ㄷ의엿도다 :

飢寒奴僕賤 顔狀老翁爲(두해 21 : 31)

‘좃’은 ‘표정’이나 ‘용모’, ‘(변할 수 있는) 모습 모양, 자태’ 등을 나타내는 데

47) 남성우(1986), pp.32-33 참조. (23ㄷ)처럼 [고정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 세 낱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광호(1990)에서 매우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양주’는 ‘靈, 位牌, 행실, 자태, 기상’ 등의 의미로, ‘얼굴’은 ‘얼굴, 형상, 형체, 몸, 신체’ 등의 의미로, 그리고, ‘좃’은 ‘모습, 모양’ 등의 의미로 쓰여, 세 어휘의 의미관계는 ‘양주>얼굴>좃’과 같은 내포관계(inclusion)임을 밝히고 있다(이광호, 1990 : 120).

쓰임이 뚜렷이 드러난다. [혼몽자해]에서의 訓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24) (가) 짓 모: 貌, 짓 용: 容(혼몽 上 24)

(나) 또 재 자바 머리와 발와 혼티 모도 잡더니 그 즈시 一萬 가지라 오래
 못보리러니(월석 21: 24)

(다) 구름 자취와 鶴이 즈에 가줄벼도 곤호미 어렵도다: 雲蹤鶴態喻難齊
 (금삼 3: 35)

‘얼굴’은 [固定的인 모습]을 표현하는 데 쓰임이 뚜렷하다. [혼몽자해]에서의 訓이 특히 그렇다.

(25) (가) 얼굴 형: 型, 얼굴 모: 模(혼몽 下 16)

(나) 이 얼굴와 얼굴 아니왜며: 是形非形(능해 2: 83)

(다) 다 능히 얼굴를 밧 사르며: 皆能外形骸(법화 6: 144)

따라서, 후기 중세 국어에서는 ‘양주, 짓, 얼굴’ 이 [形狀]이란 공통적 의미 영역을 유무적 대립 관계로 분절하는, 유의적 날말밭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7가).

그런데, 후기중세 국어의 ‘낯’은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인 [顔面]을 포함한 [顔面部] 자체를 의미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즉, 당시의 ‘낯’을 현대어로 옮길 경우 ‘낯’보다는 ‘얼굴’이 더 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 자료는 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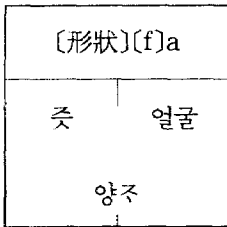
(26) (가) 城 위희 닐흔 살 쏘샤 닐흐너 느치 맛거늘 凱歌로 도라오시니: 維城之上 矢七十射 中七十面 凱歌以復(용가 40장)

(나) 모미 늙고 時節이 바드 리온저귀 느출 닷보고저 사랑호노니: 身老時危 思會面(두해 2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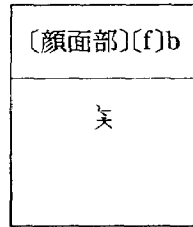
(다) 각시 쇠노라 낯 고비 빚여 드라 末利花鬘을 몸에 띠수분나(월곡 49)

‘…화살이 얼굴에 명중하거늘…’, ‘…얼굴을 보고자…’, ‘…얼굴을 곱게 꾸며…’ 등이 ‘… 화살이 낮에 명중하거늘…’, ‘…낮을 보고자…’, ‘…낮을 곱게 꾸며…’등 보다 자연스러움은 분명하다. 따라서, 후기 중세어 ‘낯’은 현대어 ‘낮’과 ‘얼굴’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었으며, 그 의미 영역은 [顔面部]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27ㄴ)과 같은 의미장을 가정할 수 있다.

(27ㄱ)



(27ㄴ)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의 ‘形狀’을 대표하는 것이 ‘안면부’라고 보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도 ‘얼굴’을 ‘어떤 사물을 대표하는 부분’으로 보아, “신문의 얼굴은 1면이다.” “서울은 나라의 얼굴이랄 수 있다” 등의 표현을 하므로, [形狀]이라는 의미와 [顔面部]라는 의미 사이에 연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形狀]의 낱말들과 [顔面部]의 낱말들은 연상적 대립에 의해 관계지어진, 하나의 연상적 낱말밭을 이루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29ㄱ).

한편, 후기중세 국어에서는 [形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漢字語 ‘모양’이 있었다.

- (28) (ㄱ) 金色 모야히 ㄷ낯 光이러시니(월석 2: 51)
 (ㄴ) 모양애 엄공흠을 심각하며: 貌思恭(소언 3: 5)
 (ㄷ) 君子의 모양은 주눅주눅하니(소언 3: 11)

그런데, 이 ‘모양’은 15세기 문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활발하게 쓰이지 않다가 차츰 그 쓰임이 증가하여 [f]a의 ‘췌, 양주, 얼굴’과 동의

경쟁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f]a에 ‘모양’이 뛰어들으로써, 결과적으로, ‘죽, 양주’는 탈락하여 死語가 되고, ‘얼굴’은 [f]b로 밀려나 [顔面部]의 의미를 차지하면서 ‘낯’을 [안면]의 의미로 축소시키게 되었다⁴⁸⁾ : (29ㄱ).

(29ㄱ)

〈F〉	
[f]a	[f]b
죽 양주	얼굴 낯



(29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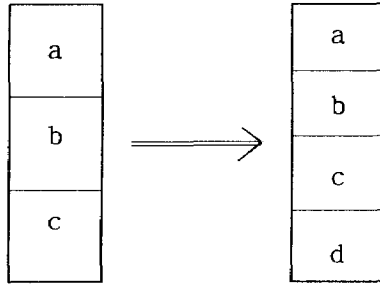
〈F〉	
[f]a	[f]b
모양	얼굴 낯

‘얼굴’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된 시기가 18세기로 추정되므로, 위 그림은 문제의 연상장의 15세기 및 18세기의 모습인 셈인데, 場을 구성하는 날말 집단 중의 두 날말이 하나의 새로운 날말로 대체되고 내적인 의의 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준다.

3.4 (D)형

場의 날말 집단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날말이 첨가되거나 탈락됨으로써, 개념적 장의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첨가에 의한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8) 유창돈(1980 : 157)에서는 [形體]의 뜻으로 쓰이던 ‘얼굴’이 [顔]의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라고 했다. 전재호(1987 : 29-39)에서는 근대국어의 여러 문헌에서 ‘얼굴’의 용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였는데, 1779년에 발간된 [韓漢清文鑑]에서는 [形狀]의 의미는 없고 대부분이 [顔]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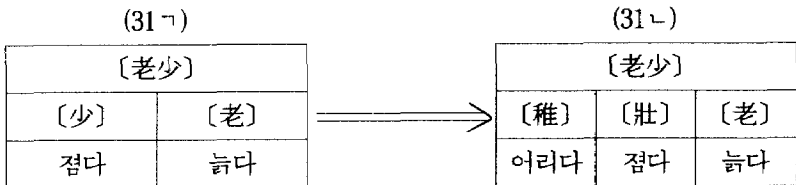
후기중세 국어에서 '젊다(少)'와 '늙다(老)'는 반의어로서 등치대립에 의한 반의적 낱말발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늙다'는 현대 국어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젊다'는 [稚]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그 예다.

(30) (ㄱ) 太子 | 저머 겨시니 뉴 기르스분려노(석보 3 : 3)

(ㄴ) 저물 유 : 幼, 저물 티 : 稚(훈몽 上 32)

(ㄷ) 밧양 주렛는 저머 아드론 닛비치 서의흐도다 : 恒飢稚子色婁涼(두해 10 : 9)

특히 (30ㄱ)에서의 太子(석가모니)는 출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젖먹이 때이다. 현대 국어의 '젊다'의 의미를 [壯]이라고 하면, 중세 국어의 '젊다'는 [壯]과 [稚]의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少]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⁴⁹⁾ 중세 국어 [老少]의 의미장은 다음 그림 (31ㄱ)과 같다.



49) 「禮記」曲禮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壯'은 30세의 나이를 가리키는 뜻으로 써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현대 국어의 '젊다'의 의미 영역은 [壯]으로, 중세 국어 '젊다'의 의미 영역은 [少]로 표시한다.

그런데, 원래 [愚]의 의미인 '어리다'가 [稚]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전재호(1987 : 64-68)는 [稚]⁵⁰⁾의 의미로 쓰인 '어리다'가 1617년의 문헌인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 8개, 1636년의 [倭語類解]에서는 1개, 그리고, 1779년의 [韓漢清文鑑]에서 1개, 또, 1867년 이전의 문헌으로 생각되는 [交隣須知]에서도 1개가 발견된다고 하고, '어리다'가 [稚]의 의미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20 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⁵¹⁾ 그와 같은 요인에 의해 밭의 구조는 위의 (31-)과 같이 된다. 이것은 곧 場을 구성하는 날말 집단에 하나의 새로운 날말이 첨가되어 의미적 장의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긴 유형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점에서, [少]의 의미가,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려는 욕구에 의해, [稚]와 [壯]으로 분화되어 '점다'가 [壯]의 의미로만 쓰이고, [稚]를 표현하기 위해 '어리다'가 흡인되어 들어와 [稚]의 영역을 메꾸게 되며, [愚]의 공백은 '어리석다'라는 새로운 날말이 채우게 되는 변화가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⁵²⁾ 이렇게 되면, '어리다-점다-늙다'는 대립항이 셋이고 계단적 구획에 의해 분절되고 있으므로, 계단대립, 단계적 날말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치대립의 '점다-늙다'는 '어리다-점다-늙다'가 되면서 계단대립으로 성립기반 자체가 변한 결과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老少]의 날말들과 [慧愚]의 날말들이 하나의 연상적 날말밭

50) 본고에서는 [幼]와 [稚]를 같은 뜻으로 보고, [稚]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51) 천주교회에서 그전부터 전해오던 필사본 [성경직히광의]을 수정 보완하여 1892년에서 1897년 사이에 활판으로 간행한 [성경직히]에도 '어리다'는 여전히 [愚]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가) 금구성인이 상히 세상 사름의 어림을 불상이 녀이니(1 : 25)

(나) 주의 눈에 거치이니 어리기 또 혼심혹도다(1 : 31)

(다) 분티 쓸 도리롤 거스리니 사치하고 어리도다(1 : 32)

52) 허웅(1981), p.401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변화의 과정을 '병행적 전의(轉義)'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조항범(1984 : 130)는 '어리석다'의 최초의 용례로 18세기 자료인 <女四書諺解>에서의 자료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조항범(1984 : 130)은 '어리석다의 어원이 '어리(愚) - + 력다)석다(小)'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을 형성한다는 가설을 세우게 한다. 정신적인 유치함과 성숙함 및 연령적인 유치함과 성숙함 사이에 유사성 또는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인식한 데서 생긴 연상이다. 그러한 낱말밭에서의 변화가 다음과 같다면, 그 결과만 보면, 하나의 낱말이 첨가되고 의미적 장의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긴 꼴이다.

(32-)				(32-)				
< F >				< F >				
〔慧愚〕		〔老少〕		〔慧愚〕		〔老少〕		
智慧 ⁵³	어리	젊다	늙다	智慧	어리	어리	젊다	늙다
롭다	다			롭다	석다	다		

4. 마무리

본고는 구조주의 의미론의 의미장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낱말밭의 관점에서 의미 변화의 특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라이온즈(J. Lyons)가 분류한 낱말밭의 변화 유형 다섯 가지 중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첫째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을 낱말밭의 관점에서 어휘의미의 변화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삼았다.

본고는 한 낱말의 의미 변화는 곧 그것이 속한 낱말밭의 구조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후기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 및 현대 국어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네

53) 후기중세 국어 문헌 자료에서 〔慧〕의 의미를 가진 낱말로 '智慧롭다', '슬겁다' 등이 있다. (근대국어에서의 자료도 아울러 제시한다).

- o. 智慧^르빔 사르미 또 ㄱ르쳐 ㅅㅁ掌叉手^하야(월석 8 : 70).
- o. 네렌 尊고 智慧^르빔신 소리오(석보 24 : 19)
- o. 슬겨오니 어리니 업시(야운 41)
- o. 슬겨온이 미혹^하이(삼역 6 : 9) *18세기 자료

가지 유형에 대응되는 날말 집단을 추출하여, 의미변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특질을 밝혀 내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날말발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을 몇 가지 예를 통하여 고찰했다.

전통적인 날말발 이론에서 하나의 날말발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말들의 내적인 의미 관계는 크게 ㉠유무대립 ㉡계단대립 ㉢등치대립 등과 같은 음운론적인 대립의 개념으로 체계화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긴밀한 의미적 유사성을 가진 날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관계망을 ㉠연상적 대립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체계화했다.

코세리우는 단차원의 날말발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했는데, 본고에서는 대립 유형의 특성과 대립항이 이원적이거나 다원적이거나의 특성에 따라, 날말발을 ㉠반의적 날말발 ㉡유의적 날말발 ㉢단계적 날말발 ㉣계열적 날말발 ㉤연상적 날말발 등으로 나누어서, 의미변화의 유형별 탐구에 이용하였다.

본고에서 연상적 대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연상적 날말발이란 새로운 발의 유형을 설정한 것은 의미 변화의 구조적 과정을 구명하는 데는 의미장 뿐만 아니라 연상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날말발의 개념을 확대하여 연상적 관계에 의한 발도 날말발의 태두리 속에 넣어서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취한 셈이 된다.

연상장의 이론은, 연상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가 힘든 인식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점에서, 과학적 엄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고는 이와 같은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연상의 문제가 의미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됨은 충분히 밝혀진 문제이므로, 의미 변화의 구조적 특징을 포착하려는 어떠한 연구에서도 불완전하나마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또, 본고에서는 세밀한 자료의 뒷받침 없이 추론으로 일관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는 각 시대별 어휘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종택(1969). 국어의 의미 집단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 김종택·천시권(1977). [국어 의미론]. 증보판. 형설출판사.
- 김형규(1955). [국어학사]. 白映社.
- 김형규(1962). [增補 국어사 연구]. 일조각
- 남광우(편)(1971). [補訂 古語辭典]. 일조각.
- 남성우(1985). [국어 의미론]. 永言문화사.
- 남성우(1986). [15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탐출판사.
- 남성우(역)(1987). [의미론: 의미과학 입문]. 탐출판사; Ullmann, S. (1962).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 남성우(역)(1979). [의미론의 원리]. 탐출판사; Ullmann, S. (1957). *The Principles of Semantics: A Linguistic Approach to Meaning*. 2nd edition, Oxford: Basil Blackwell.
- 박병채(1989). [국어 발달사]. 世英社.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오원교(역)(1975). [일반 언어학 강의]. 형설출판사; Saussure, F. de (1916).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ris: Payot.
- 유창돈(편)(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宣明문화사.
- 이광호(1990). 15, 6세기어 [양조], [जू], [얼굴]의 유의구조 분석. [어문학], 51. 대구: 한국어문학회.
- 이익환(1984). [현대 의미론]. 민음사.
- 이정민·배영남(1987). [언어학 사전]. 개정증보판. 박영사.
- 이현규. 국어 전용법의 사적 연구: 중세어 이후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어 논문

- 집], 1. 한사대 (대구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1981.
- 임환재 (역) (1984). [언어학사]. 경문사.
- 장영천 (역) (1988). [구조 의미론과 날말발 어론]. 집현사.
- 전재호 (1987). [국어 어휘사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정시호 (1984). 계열적 어장어론 연구 : 형성 배경과 전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항범 (1984). 국어 유의어의 통시적 고찰. [국어연구], 58. 서울대 국어연구회.
- 한글학회 (편) (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 Cambridge U. Press.

자료 인용문헌

금 삼 : 금강경삼가해	능 해 : 능엄경언해
동 문 : 동문유해	두 해 : 분류두공부시언해 (초간본)
무원록 : 증수무원록언해	법 화 : 법화경언해
석 보 : 석보상절	석 천 : 석봉천자문
소 언 : 소학언해	용 가 : 용비어천가
월 곡 : 월인천강지곡	월 석 : 월인석보
청구 (오) : 청구영인 (오씨본)	훈 몽 : 훈몽자해